

새해 첫 '피겨 여왕' 누가 될까?



김연아

2008년 한해 은반에서 치열한 승부를 펼쳤던 '동갑내기 라이벌' 김연아(군포 수리고)와 아사다 마오(이상 18·일본)가 킬 톰도 없이 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2009년 2월2~8일·밴쿠버)를 겨냥한 혹독한 '자기와 싸움'을 시작한다.

지난 9일 입국해 2008-2009 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과 자선 아이스쇼를 치르느라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던 김연아는 28일 전지훈련지인 캐나다 토론토로 떠났다.

아사다 역시 지난 주말 전일본피겨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대회 3연패를 달성, 4대륙대회와 내년 3월 세계선수권대회(미국 LA) 출전권을 모두 따내는 성과를 거두며 올해 경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하지만 김연아와 아사다의 대결은 이제 시작이나 다름없다. 그랑프리 파이널로 불을 지핀 한일 '피겨 요정' 맞대결은 4대륙 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절정에 이르게 된다.

특히 이번 4대륙 대회는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2월2일 '4대륙 선수권'

김연아·아사다 맞대결

실수 줄이기 최대 관전

피겨 종목의 '프리 올림픽'으로 치러지는 만큼 1년 앞서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윤곽을 그려볼 좋은 기회여서 김연아와 아사다 모두 남다른 각오로 대회 준비에 나설 수밖에 없다.

◇연아 '완성도는 높이고 실수는 줄이고'=전지훈련지가 캐나다 토론토인 김연아로서 시차적응에 대한 걱정이 없어 아사다보다 4대륙대회 준비에 유리하다. 이 때문에 김연아는 한 달 이상 남은 대회 기간까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연아는 출국 인터뷰에서 "시즌 후반부인 만큼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면서 실수를 줄이고 싶다. 이를 통해 좋은 점수를 따겠다"라고 강조했다.

시즌 초반부터 부상 없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 온 만큼 실수만 줄이면 충분히 우승을 잡쳐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4대륙 대회뿐 아니라 내년 3월 세계선수권대회도 미국에서 열리는 만큼 시차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아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조건도 갖췄다.

◇아사다 '연속 3회전 점프 2회 도전'=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두 차례 트리플 악셀(공중 2회전반)을 앞세워 김연아의 벽을 넘어 3년 만에 우승을 달성한 아사다는 전일본선수권대회에서 3연패를 차지하면서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아사다는 이번 대회 프리스케이팅에서 트리플 악셀 회전수 부족으로 감점을 받고, 쇼트프로그램에서는 연속 3회전 점프를 실수했다.

이번 시즌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을 남자 선수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체력은 물론 완성도까지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탄탄한 기본기를 앞세운 정석 점프로 가산점을 따는 김연아와 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아사다는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4대륙대회 직전까지 국내에서 연습하고 나서 캐나다로 들어가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



아사다

'11연패' KEPCO 45 첫 승 언제 올릴까?

프로배구 KEPCO45가 햇볕조차 들지 않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올해부터 프로팀으로 NH 농협 V리그 남자부에 참가한 KEPCO45는 28일 선두 현대캐피탈과 3라운드 첫 경기에서 0-3으로 완패, 개막전 이후 11연패를 당했다.

지난해 여자부 현대건설이 작성한 개막전 최다 연패 기록과 금세 타이틀 이뤘고 30일 LIG손보전에서 진다면 달갑지 않은 신기록을 세우게 된다.

아마추어 초청팀으로 참가한 지난해에는 같은 처지였던 상무를 상대로 3승을 올렸고 삼성화재도 잡아 4승3패로 시즌을 마치고도 했으나 올해는 이길 조짐이 영 보이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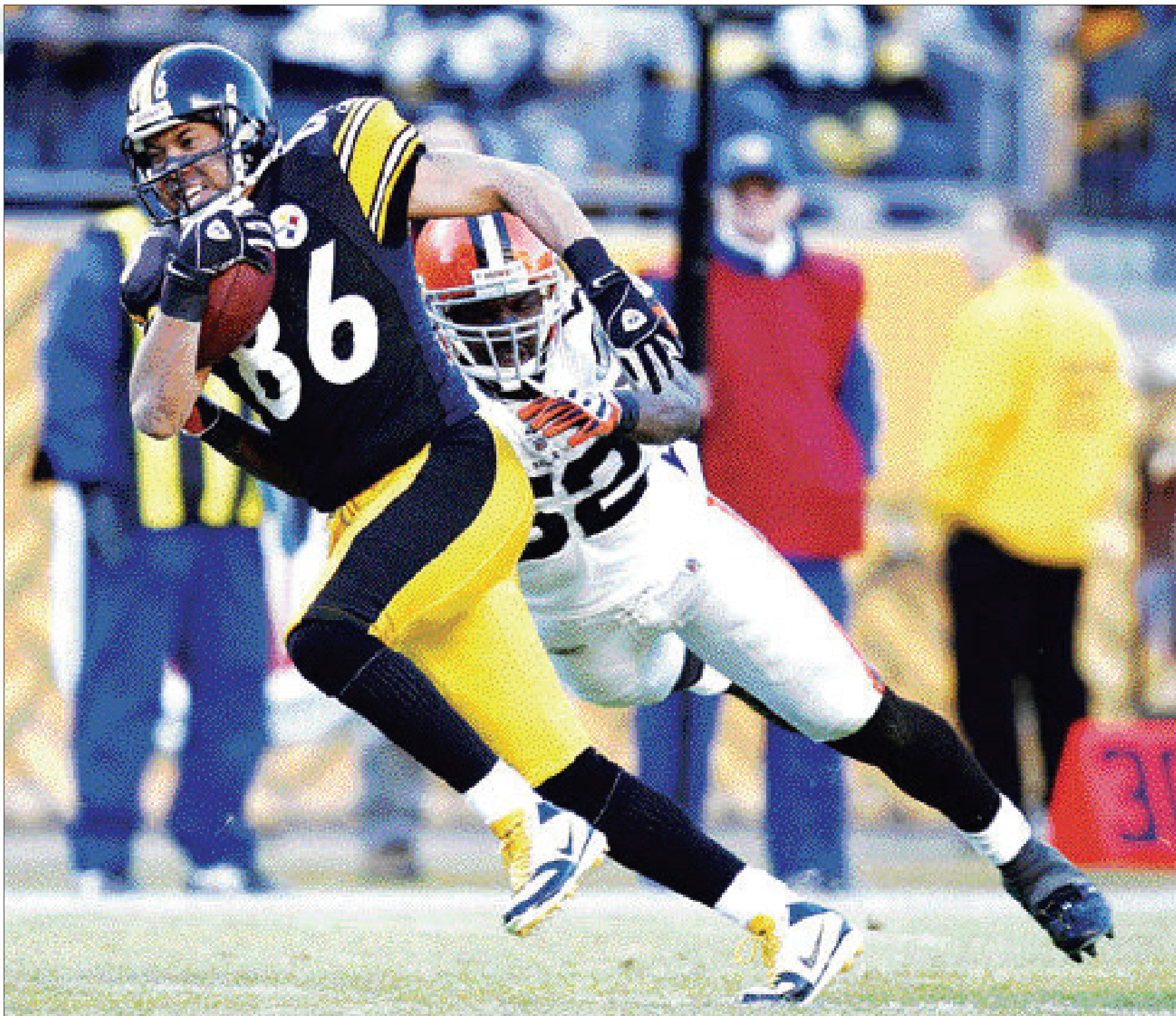
상무 제외한 프로팀 상대 단 한세트 승리도 못거뿐

는다. KEPCO45와 마찬가지로 '프로팀을 한 번씩은 꼭 잡겠다'고 다짐한 신협상무가 지난 23일 3년 만에 대한항공의 달미를 낚는 등 올 시즌 3승이나 올린 것과 비교하면 KEPCO45의 처지는 더욱 암울하다.

손발이 맞지 않던 프로팀들이 조직력에서 안정을 찾음만 한 시점인데다 선두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보약'을 놓치지 않으려 하기에 KEPCO45의 연패는 더욱 길어질 공산이 크다. 선수 수급이 안돼 약진고투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신인 드래프트로 6명을 수혈했으나 당장 프로 무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력상 크게 나아지지 못한 게 연패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키 190cm대 후반에서 200cm대 선수가 즐비한 프로팀과 달리 높이가 낮아 가로막기에서 상대가 되지 않고 상대 블로커에 부담을 느껴 공격 범실이 느는 약점을 겪는 것도 한 원인이다.

그보다도 선수들의 자신감 결여가 맥없는 플레이를 자초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29일 현재 11경기에서 3세트를 따내고 33세트를 잃은 KEPCO45는 상무를 상대로만 3세트를 따냈을 뿐 나머지 프로 4팀을 상대로는 한 세트도 이기지 못했다. /연합뉴스



미국프로풋볼(NFL)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하인즈 워드(사진 왼쪽)가 29일(한국시간) 미국 피츠버그 하인즈 필드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의 16라운드 경기에서 상대 수비수의 태클을 피해 전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워드 시즌 1천야드 돌파

미국프로풋볼(NFL)에서 활약 중인 한국계 하인즈 워드(32·피츠버그 스틸러스)가 4년 만에 시즌 1천 야드를 돌파했다.

와이드리시버 워드는 29일(한국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하인즈 필드에서 끝난 정규시즌 16주차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홈경기에서 6차례 패스를 받아 70 야드를 전진했다.

전날까지 973야드를 달린 워드는 이날 70야드를 보태 1천43야드를 기록, 2004년 1천4야드를 달린 이후 4년 만에 특급 리시

버의 척도인 1천 야드를 넘어섰다. 개인 통산으로는 5번째다.

2001년 1천3야드를 전진한 워드는 이듬해 1천329야드로 한 시즌 개인 최다를 기록했고 4년 연속 1천 야드를 넘겼다. 리시브에서 피츠버그 팀 기록을 보유 중인 워드는 이날 6차례 보태 통산 800개 리시브 야드를 받았다.

워드는 터치다운을 찍지는 못했으나 활발하게 필드를 누비며 득점에 일조했다. 피츠버그는 2쿼터와 4쿼터에 각각 터치다

운 2개씩을 기록하고 31-0으로 완승, 정규 시즌을 12승4패로 마쳤다.

2006년 무릎 부상, 2007년 코뼈 골절 등으로 2년 연속 수술대에 올랐던 워드는 올해 81차례 패스를 받아 1천43야드를 전진하고 터치다운 7개를 찍는 등 피츠버그 주전 와이드리시버로서 위용을 뽐냈었다.

이미 아메리칸콘퍼런스(AFC)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피츠버그는 그러나 쿼터백 벤 로슬러버거가 이날 뇌진탕으로 실려 나

4년만에 기록...개인통산 5번째 NFL 클리블랜드전 완승 견인

가면서 비상이 걸렸다.

미국 언론은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 지었는데 마이크 톨린 감독이 큰 의미 없는 마지막 경기에 주전 선수들을 모두 내보낸 통에 문제가 생겼으며 쓴소리를 했다.

한편 은퇴 후 명예의 전당 입회와 일찌감치 예고된 현존 최고 쿼터백 페이튼 매닝(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은 이날 패스 95 야드를 보태 4천2야드로 개인 통산 9번째 시즌 4천야드 패스를 돌파했다. /연합뉴스

한국골프 영향력 있는 인물

1위 최경주 2위 신지애

최경주(38·나이키골프)가 한국 골프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뽑혔다.

서울경제 골프매거진은 29일 국내 처음으로 골프 전문가와 프로듀서들을 대상으로 '한국 골프계 영향력 있는 인물'에 대해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최경주가 평점 182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총 50명의 전문가와 PD가 참여한 이번 설문에서 최경주는 미국 PGA 투어에서 통산 7승을 거두면서 한국 골프의 위상을 세계에 떨치고 있고, '최경주 재단'을 통해 각종 선정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 큰 점수를 얻었다.

최경주에 뒤를 이어 신지애(하이마트·116점)와 윤세영 대한골프협회장(99점)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고, 박세리(80점), 박삼구 한국프로골프협회장(66점), 홍성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장(44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승민 무릎 연골 파열 재활·수술 놓고 고민

'재활이나 수술이냐'

남자 타구 '간판' 유승민(26·삼성생명)이 무릎 부상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유승민은 지난해부터 좋지 않았던 무릎 부위에 대한 정밀진단을 최근 받은 결과, 왼쪽 무릎 연골이 1cm 정도 찢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에는 불편이 없지만 격렬한 훈련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태다. 지난 28일 안양 호계체육관에서 열린 '2008 불우이웃돕기 자선타구 대회'에 참가해 동호인들과 경기를 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던 그는 훈련량을 줄이고 재활을 병행하고 있다.

강문수 삼성생명 감독은 "용인 삼성트레이닝센터에서 오전 훈련에 이어 오후에 재활을 하고 있다. 훈련량은 종전 100% 대비 60% 수준이다. 재활을 하면서 훈련 강도를 높이고 있으나 수술을 할지는 내년 4월 세계선수권대회가 끝나고 나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승민도 "작년부터 무릎이 좋지 않았는데 병원 검진을 받고 나서 연골이 찢어진 걸 알았다. 일단 재활을 해보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